

We have to search for what and who is behind our actions, discourses, not who is behind the (candlelight) vigils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교육학 전문가인 ◇◇◇선생을 통해 보듯이, 전문가라는 사람에게서 전문가다운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고, 이는 다름 아닌 전문가라는 집단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사전에 따르면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이러한 정의는 과거와 같이 한 분야가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거나(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면서 음악가였고 철학자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가이자 미술가이자 발명가였다.) 각 분야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그러한 소통을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 사회와 삶에 대한 통찰을 깨달을 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이미지와 일치했으나, 세상의 모든 일과 같이 ‘전문가’라는 단어 또한 역사성을 가지고, 그러하기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에 대한 기계적 접근과 환원주의로 인해 너무 세분화되어 버린 현재의 분과 학문 구분과 풍토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란 결국 사물의 한 면만을 보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회문화의 다양한 일면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여 시대적 흐름에 속절없이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무시한 채 이론만 앞세우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현실에서 유리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지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무 기사나 논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 데 그러한 교육이 어느 곳의 교육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거나, 현실적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들의 외침만 들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예를 강기수 교수가 쓴 교육칼럼 ‘만남 그리고 교육’에서 볼 수 있다. ◇◇◇ 교수는 ‘만남 그리고 교육’이라는 칼럼에서 교육을 만남에 비유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학습 이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이 어떠한 일을 하든,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한 반에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전부 지도해야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한 명의 학생의 탈선이나 위반이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처벌이나 징계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학생들 지도를 제외하고도 갖가지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어떻게 한 사람의 학생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낼 시간을 가지라는 것인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만남과 신뢰는 아름다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의 담론 속에는 말 잘 듣는 학생, 수업 잘하는 교사 등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 힘든 정돈된 하얀 백지 위에 깨끗하게 정돈된 백색의 교실을 묘사한다. 그의 담론 속에는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 점수에 압박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 저갯거리의 온갖 잡색의 이야기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전문가

라는 권위를 이용해 자신이 말하는 이상적 모습의 교실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착각이 일게 한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님을 느끼겠지만 그의 직위를 듣고는 금방 수긍할 것이다.

교육학 관련 학회를 가조면 교육자율화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온다. 최근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교육 자율화이고, 이를 위해 이미 전국적으로 자사고 선정이나 입시에서의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라는 말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체험학습을 강행한 교사를 해임시키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모니터하고 걸러내려 하며,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대입 입시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려는 정부의 교육관련 행보를 생각하면 공허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일제고사 일괄실시 방침에 의해 휴일에도 학교에 가야하고, 0교시가 생겨나며, 심지어 일제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고사까지 연기하는 초등, 중등학교의 모습과 일제고사의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성과급이나 외국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학교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의 모습 어디에서 교육 ‘자율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에 대한 논의 속에 방학에도 보충학습을 위해 아침 일찍 학교를 나서야하는 중학생의 모습과 성적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늦은 밤까지 학생들에게 줄 자료를 만드는 교사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현실과는 상관없이 ‘교육학’이라는 특수한 마을에 살면서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다른 마을에 눈길을 주려고도 하지 않는 교육학 교수의 모습이나 시종일관 교원평가제 강행의 당위성만을 되풀이하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 관료, 즉 소위 ‘전문가’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방송에서 볼 수 있듯,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교조 실장과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자식을 둔 학부모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적이며,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진정한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측은 전교조 책임자와 학부모회 실장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학교 교육은 학교가 사회 공동체 중 하나로서 그 곳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협동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협동과 연대를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공동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참여로서의 교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다. 표현 방식만 달라진 똑같은 교사평가 항목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교과 내용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수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사가 전문성이 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에서 무엇이 교육인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어쩌면 이런 주장들이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경쟁이 중요시 되고 수능 점수가 학생의 목표이자 전부인 현실에서 이런 배움의 공동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나오는 교원평가제가 결국은 예전의 것을 답습하고 기존 교육의 모습을 고착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필요 한가 더 철저히 반성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제도를 추진한다면 사회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체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 정책실장의 말이 우리 학교의 모습을 잘 직시하고 있는 것 같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결국 물 안 나옵니다. 교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현장에선 죽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교원평가가 또 하나의 형식주의, 선생님들에게 잡무로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자각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미국, 일본의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학교 현장, 아이들, 교사, 학부모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얼굴이 보일 수 있는 담론들이 오고가야 하는 것이다. 행정 관료와 교육학 교수의 담론에서는 **교원 평가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사회 요건들이 생략되어있다.**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진급 문제, 교육에 있어 학부모 배제 등 등 또 그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어 보인다. 학부모회 실장이 증거자료를 내놓고 조사해서야 그게 문제인 것이 드러나다니!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쳐두고라도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는 모습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무책임함과 학교 교육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게 된다.

또 그들은 학교와 교육의 질을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회 구조의 모순과 다른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함을 은폐한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는 교육학 교수에게 교사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에게 질문하는데 이에 대해 교수는 평가는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며 대답을 거부한다. 반면, 방송 내내 학부모는 교원평가제를 미리 실시한 선도학교에서의 결과나, 학부모에의 홍보를 통한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사란 무엇이고, 교육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한다. 게다가 전교조 교사는 교수도 내지 못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東京大學의 사토 마나부 교수의 일본에서의 새로운 실험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는 행정 관료 측과 교수가 교사의 자질에만 초점을 맞출 때 교사와 학생의 교감이나 교육 공동체 등 교육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제가 이후 교육계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라는 교수의 역할과 이 땅에서 비전문가로 여겨지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답을 제시해야할 전문가가 원론만을 되풀이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실제로는 전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학부모나 교사가 교원평가제라는 문제를 단순히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교육이라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교육 등, 보다 넓은 맥락에서 생각하는 아이러

니한 역할 역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행정 관료나 교수, 교사와 학부모가 같은 문제에 대해 왜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다른 답변을 하는지를 알려줄 핵심일 것이고, 이에 대해 나는 그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 즉, 교육에 얼마만큼 받을 담그고 있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시종일관 교원평가제 강행의 당위성을 되풀이하는 행정 관료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자신의 위치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부산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여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금을 얻어내려는 속셈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승진이나 인사에서의 유리한 점수를 따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세 명에 비해 특히 ‘말조심’하는 강 교수의 행동에는 자신의 교수로서의 명성이 말 한번 잘못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방송출연을 통해 더 많은 인지도를 쌓고 싶다는 명예욕 그리고 중립적 태도를 보임으로써(실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면서) 이후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거나 시행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회피적 면모가 드러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행정 관료와 교수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은 교사 또는 학생이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만 바꾸거나 아니면 학생들만 뒤통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교사를 모니터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는 시행되어야 하며, 일제교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 중등학교의 레벨이 평가되고, 수능 원점수가 공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가 서열화 되어 교육경쟁이 더욱 치열해져도 어차피 자신들의 일이 아닌 ‘교육= 교사+ 학생’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그에 비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학부모는 교육을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수업, 교사와 학생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린교육, 자율교육을 장려하라는 학교의 말뿐인 지침과는 반대로 매달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 달라지는 지원가능 대학의 레벨을 확인하는 학생을 보는 교사나 중학교에 들어 가자마자 0교시 수업에 재량학습을 빙자한 교과학습, 방과 후 영, 수학원에 과외까지 하고나면 밤늦게야 잠드는, 방학을 빼앗긴 자식을 바라보는 학부모에게 있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교실 외부의 다양한 바깥기운들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인식은 행정 관료나 교수와는 달리,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이 단순히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공간에 속한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 관계이고 교사가 학생보다 우위에 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 그리고 단순히 수업만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사, 학생과 교감하는 교사,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행정 관료나 교수의 발언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은 학생이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

내 학생'이자 교육을 받는 당사자이며,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이기에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수십만의 아이들에게 냉혹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교육을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의 문제이자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기에 교육이 일어나는 사회 또한 중요한 문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인해 교원평가제 라는 문제도 단순히 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영향 등 보다 넓은 맥락, 즉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과 교육을 현실에서 떼어내 교사와 학생 개인 간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행정 관료와 교수의 입장 중 어느 쪽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더 나아가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나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의 주장이 아닌, 현실과 유리되어 상아탑 속에 존재하는 학문과 이러한 학문을 하는 소위 전문가의 의견과 이론이 일상생활에서 현실적 이해나 상황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¹⁾.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학 전공 교수들의 지적수준이 그제 서울대학이든, 부산대학이든 동아대학이든 관계없이 강기수 선생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류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교육학 교수와 행정관료 측은 교사와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반대를 교원평가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돌리면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홍보,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돌려 말하면, 교원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교원평가의 '고상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무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현장이나 실제 경험보다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적 고찰을 상위에 두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²⁾ 토의 진행 내내 학부모나 교사가 제시했던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교수나 행정관료 모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러한 현장의 문제를 교원평가제에 적극반영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접근보다 교육학자나 행정관료들의 이론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태도는 서구 근대의 '실험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산물이다. 근대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생활의 획기적 변화는 과학만능주의 내지

-
- 1) 기지촌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는 국군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영어를 쓰는 미군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몇 갑절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기지촌의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하얀 종이 위에 남의 말로 씌인 이야기들을 달달 외는 것보다 몇 갑절 어려울 것이다. 기지촌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언어로써 풀어내는 김씨나 이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이데거의 짚은 독어나 비트겐슈타인의 마른 독어를 해독하는 것보다 몇 갑절은 더 어려울지 모른다. 기지촌의 사람들로서는 한데 모여 대화의 긴장을 통해서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통반장의 번역을 통해서 시달되는 문서 한 장 읽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 2) 이야나라의 진술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과 개념과의 관계는 생명체처럼 살아 숨 쉬는 관계이다. 아이들은 '사물'과 '개념', '사물'과 '기호'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를 확인하고, 세계를 조금씩 넓혀 나간다. 그 과정은 오랜기간에 걸쳐 술이 발효해 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우연성을 품은 과정이 아이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져오는 조건이다. 이야나라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다양한 체험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고, 그러한 체험 속에서 공통된 하나가 비추어져 나올 때 하나의 개념이 추출된다. 그러한 개념이 의식화될 때,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이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의 체험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평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새가 지상의 풀과 곤충을 먹으로 끊임없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듯이, 추상적인 개념도 끊임없이 구체적인 사물과 일, 현상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메말라 버린다.(심리학은 아이들편인가, p83)

는 과학적 방법의 우월성을 주장했고, 그러한 과학적 방법론 중 특히 우위에 서있는 것이 ‘실험적 연구법’이다.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문제는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험실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실과 유리된 통제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실험실 안의 문제분석과 그를 통한 해결책은 한 두 개의 변수로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다이내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거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실험적이며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론을 우위에 두고 일방적으로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이며, 이는 교육의 예에서 보았듯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사들에게는 현재의 두 개의 평가에 더한 또 다른 평가를 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이 수업에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와 학생의 교감, 인격적 대우라는 바람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더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실험실 안에서 one side mirror를 통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음소거된 상태에서 무심히 지켜보는, 안이 아닌 밖의 일, 즉,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을 바라보는 행정 관료와 교수들이 교육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교육문제에 관해 교사나 학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행정 관료나 교육학 교수들이 이제라도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나’와 현실을 가로막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현실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만들었던, 연구실과 실험실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야만 한다.

물론 모든 학문이 동굴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 있는 대안도, 결국 이상적인 대안도 아니다. 우리는 저 완강한 동굴벽의 불투명성에 틈과 균열들을 만들어 그것으로 안과 바깥이 통풍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소통을 가열하게 진행해야 한다³⁾.

3) 한 인간으로 하여 편안하게 길들여진 세계의 문법과 화용론을 버리고 미지의 새로운 것들을 찾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코드기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가. 스페인 철학자 우나무노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돈키호테와 같은 유혹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확실히 세상에는 돈키호테가 산초로 하여 다시 그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게 하고 그의 평화스러운 직업을 떠나게 하고, 또 헛된 모험을 추구하기 위하여 처자를 버리도록 결심하게 한 데 대하여 돈키호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함으로써 그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정열을 돌구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며, 비록 그 노력의 목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신되어 있는 때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의 강력한 동경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람들은 산초를 그의 고향으로부터 피어내야 하고 그의 처자로부터 떼어내야 하며 그래서 산초로 하여 모험을 찾아 집을 떠나도록 부추기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으려면 문법이 바뀌어야 하고 문법이 바뀌려면 모국어의 바깥에 나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깥’이 중요하다. 어느 학문에서나 쉽사리 이 바깥은 망각되고 만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안이면서 바깥일 수 있고 자신들은 전공자이면서 동시에 비전공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은 돈키호테의 유혹으로 고향마을을 떠나기전의 산초와 같은 처지로 남겨지게 된다.